

기획논문

행정학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과 신유물론적 재사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김 대 건**

- I. 문제제기
- II. 신유물론의 이해
- III. 비판과 신유물론적 재사유
- IV. 신유물론의 적용: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 V. 향후 과제: 신유물론 조직이론의 더 깊은 논의를 위하여
- VI. 맺는말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이 조직을 주로 인간의 의지·합리성·관리기술에 의해 작동하는 대상으로 전제해 온 점, 즉 인간중심적·도구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비판한다. 이에 신유물론 관점에서 조직 개념을 재정의하고,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인간 요인(주민 의지, 참여, 사회적 관계, 제도)만이 아니라 기후·지형·공간·기술·물질·정동 등 비인간 요인들이 함께 얹혀 작동하는 복합적 구성체(장치)로 재개념화한다. 나아가, 신유물론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실제 작동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관계적으로 결합·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됨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는 Barad의 상호내행위(intra-action), Bennett의 생동하는 물질성(vibrant matter), Deleuze와 Guattari의 배치(assemblage),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ANT)를 검토·연결하여,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이 포착하지 못한 조직의 물질-정동적 작동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인간중심·도구주의적 조직이론을 넘어서는 신유물론적 조직이론의 필요성과 관점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조직화의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과제(향후 연구 방향 포함)를 제안한다.

[주제어: 조직이론, 신유물론,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인간·비인간 행위자]

* 이 논문은 2025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25).

**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daegeonkim@kangwon.ac.kr)

I. 문제제기

주민자치는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 중심의 자치¹⁾(강은숙, 2003; 김필두·류영아, 2015; 김대건 외, 2023)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거쳐,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²⁾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합체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지리적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소속감, 유대감, 연대감, 충족감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집합체(김대건, 2011; 김대건, 2019; 김찬동, 2012; 김찬동, 2014; 김대건 외, 2022)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주민자치에 관한 논의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조직적 실체를 가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³⁾는 의사결정 주체인 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주체적 의지 및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조직체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현상을 접할 때,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거나 토론할 때, 현상을 분석을 하거나 해석할 때,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과 분석틀로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실제로 작동되는 것을 보면, 주민의 의지나 역량을 넘어 비인간 요인들 - 예컨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회의실 장소와 지침서 문구 및 문서 양식, 예산 시행 규칙과 절차, 회의 장소의 부재 여부, 회의 공간의 배치와 접근성, 공무원의 인사 주기, 지리적 공간, 마을회관과 주변 주거 시설의 배치(assemblage) 등 - 에 의해 형성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주어진 제도 속에서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질적이고, 다중행위자(multiactor)의 얽힘(entanglement)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
- 1) 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의 ‘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 2) 주민의 참여권 및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의 구현(주민의 권리 강화, 주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 주민참여 강화, 자치권 확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정상화,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주희진, 2021; 김대건 외, 2023 재인용).
 - 3)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제도가 아닌 조직 그 자체로 보고,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제의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보편적인 공동체의 구성 요인과 충족감·연대감·소속감·정서적 친밀감·일체감 등과 같은 공동체의식 형성(김경준·김성수, 1998; 성희자·전보경, 2006; 양덕순·강연순, 2008)에 기초한 인식론적 관성, 둘째, ‘인간 이외의 비인간 요인은 관리·조정해야 할 객체(object)’로 보는 도구적·관리적 패러다임, 셋째, 인간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human-centered paradigm), 넷째,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섯째, 단체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틀과 구조의 측면을 강조한 제도중심주의⁴⁾, 여섯째, 제도·규약·운영 등 공식적 구조나 절차적 틀로만 환원하려는 환원주의, 일곱째, 참여율·사업 수·예산 집행율과 같은 정량적 지표 또는 주민 갈등 해소 역량·리더십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관점 등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학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과 신유물론(new materialism)적 재사유’가 필요하다. 인간중심적인 인식론을 넘어서서, 인간·비인간 요인, 즉 인간과 기술·공간·사물 등 물질이 모두 능동적 행위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신유물론적 관점으로서의 확장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자치회를 ‘참여를 늘리는 기제’에서 ‘다종적 행위자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마을공동체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집합체’에서 ‘인간과 공간-사물-기술 등 물질이 서로 얽혀 있는 실체’로 볼 수 있는 행정학 조직이론의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arad(2007)의 ‘상호내행위(intra-action)’, Bennett(2010)의 ‘물질의 생동성’과 Bennett(2010), Deleuze와 Guattari(1987)의 ‘배치(assemblage theory)’, Latour(2005)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등에 기초하여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을 비판하고, 비인간 요인도 조직의 능동적 행위자임을 밝힌다. 또한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신유물론적 정의를 제안한 후, 기존의 조직 정의와 신유물론적 조직정의 및 기존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정의와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정의를 상호 비교한다. 그리고 신유물론적 관점을 실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에 적용해 본 후, 향후 신유물론 조직이론의 더 깊은 논의를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4) 이는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참여 저조 현상, 특정 인물 중심 운영, 연령·계층 간 불균형, 공간적 제약, 디지털 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불평등 해소,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제도·규범의 미비, 권력관계 구조, 대표성의 문제, 참여 의식 부족, 마을공동체의 해체 요인, 리더십 부재, 역량교육 부족 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II. 신유물론의 이해

1. 신유물론의 등장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은 200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이 이론은 과학기술학, 페미니즘 이론, 생태철학, 포스트휴먼 이론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지적 흐름으로, 근대 이후 인문사회과학이 전제해 온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주체-객체의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신유물론은 물질을 수동적 기반으로 보았던 기존의 유물론(materialism)의 한계를 넘어, 물질 자체를 능동적이고 생동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려 한다. 신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근대적 사유체계⁵⁾는 21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기후위기, 기술적 초연결성, 생태 파괴, 복잡계적 사회변동 등을 이해하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유물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자인 Barad(2007)는 ‘상호내행위(intra-action)’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구성되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이는 독립된 개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inter-action)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체가 관계 이전에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체하는 시도이다. 즉 개체는 처음부터 구분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얽힘(entanglement) 속에서 나타나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Bennett(2010)은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을 통해 물질의 행위성을 다시 사유한다. 기존의 유물론이나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물질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가공 가능한 수동적 대상이었으나, Bennett(2010)에 의하면 물질은 스스로 운동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며, 인간의 실천, 감각,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하는 행위자이다. Bennett(2010)은 사물·기술·환경에 내재한 비인간 행위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물질의 분리를 해체한다.

또한 Deleuze와 Guattari(1987)가 제시한 ‘배치이론(assemblage theory)’은 신유물론의 핵심 이론적 기반이다. 배치(assemblage)는 고정된 구조나 본질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특정한 순간의 조건 속에서 결합하여 잠정적으로 구성되는 생성적 실체를

5) 인간을 세계의 중심적 존재로 상정하여 자연과 기술, 사물, 동물, 기후 등 비인간 존재들을 단순한 ‘배경’ 또는 ‘도구적 자원’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현상을 인간의 의지와 행위만으로 설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의 현상들은 단일 원인이나 일관된 구조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물·기술·감정·기후 등이 순간적으로 배열되며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Latour(2005)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이러한 사고를 사회적 실천 전체로 확장한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한 행위자로 두고, 사회적 현상은 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관계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를 오직 인간 간의 관계망으로 이해해온 전통적 사회학의 전제를 비판하며, 비인간 존재들이 사회 구성의 중심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2. 신유물론의 개념적 구성요인과 적용

1)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

전통적 유물론과 근대 과학은 물질을 인간에게 의해 가공되고 사용되는 수동적 객체로 보았다. 물질은 그 자체로 아무런 목적이나 힘을 가지지 않으며, 인간의 의도와 기술이 투입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신유물론에 의하면, 물질은 단순한 배경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부에 운동성, 자율성, 잠재성을 품은 존재로 이해된다(Bennett, 2010). 물질은 정지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상호내행위를 하며, 그 자체로 세계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이다. 따라서 물질성(materiality)은 더 이상 부차적 요인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성의 핵심이 된다(Bennett, 2010). 이 개념은 조직은 인간만이 아니라 공간·기후·기술·사물 등과 같은 물질적 요인들이 함께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실체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2) 물질의 행위성(material agency)

물질의 행위성은 비인간 요인인 물질도 능동적인 행위성을 지니고, 나아가 능동적인 행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nnett, 2010). 물질의 행위성을 조직에 적용하면, 조직과 관련된 비인간 요인인 물질은 단순히 조직의 도구나 배경이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실천 행위를 이끄는 능동적 행위자이다. 이 개념은 조직의 행위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기술, 문서, 공간, 조직 속에 배치된 사물과 장치도 능동적인 조직의 행위자이며, 이들은 단순한 조건이나 자원이 아니라, 조직의 사건(event)

을 생성하는 능동적 힘(force)을 지닌다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3) 얽힘(entanglement)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으며, 분리된 개체로 환원될 수 없다.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사물-자연-기술-감각-정동은 각각 고유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열려 있으며, 얽힘 속에서 비로소 특정한 존재 방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존재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관계적 효과이며, 관계가 변하면 존재 역시 변한다. 인간의 경험은 자연적 조건·기후·기술·도구·물질적 환경과 단절된 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얽힘의 관점에서 조직을 보면, 조직 속의 인간과 비인간 요인은 분리될 수 없는 거대한 상호공속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비인간 요인들도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조직은 얽힘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관계가 얽히며 만들어지는 과정적 장치이다.

4) 배치(assemblage)

Deleuze와 Guattari(1987), Bennett(2010)에 의하면, 배치는 여러 종류의 생동하는 물질들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을 일시적으로 묶은 것이며, 진동하는 연합이다(문성재, 2020: 82). 배치는 어떤 물질의 총합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배치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생성적 조합이다. 이 개념에 의해 조직을 본다면, 조직은 하나의 경계가 명확한 실체, 목적·구조·규칙·권한·업무 흐름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 또는 고정된 구성물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요인들의 임시적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호내행위(intra-action, 상호공속적 행위)⁶⁾

Barad(2007)가 말하는 상호내행위(intra-action)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6) 본 논문의 저자는 상호내행위를 ‘상호공속적 행위’와 같은 의미로 본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상호공속적 행위’ 또는 ‘상호공속적’이라는 용어는 Barad의 상호내행위(intra-action)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는 의미이다. 상호작용(inter-action)이 독립된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상호내행위는 개체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주체와 객체는 애초에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상호작용은 두 개의 독립된 주체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상호내행위는 주체와 객체가 관계 속에서 함께 구성된다고 본다. 상호작용이 이미 분리된 주체 간의 영향 관계를 전제한다면, 상호내행위는 관계 속에서 주체와 객체가 함께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조직에 적용해 보면, 조직은 독립적이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기술-공간-자연-도구 등 인간·비인간 요인의 상호내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조직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제도 변화뿐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의 재배치가 관계적 가능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순간에서 발생한다.

6)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

사회는 인간의 관계망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구성하는 네트워크이다. Latour(2005)가 제시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인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만 설명해 온 틀을 전복한다. 이 이론은 사회적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의 의지, 목적,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 도구, 문서, 공간, 자연물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임을 강조한다. 즉 사회는 인간만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내행위가 얹혀 구성된 복합적 관계망, 즉 네트워크는 인간의 의도나 제도적 설계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회적 행위가 특정한 비인간 요인들과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과 제약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회를 고정된 구조나 제도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끊임없이 얹히고 재조합되는 과정적 실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신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를 조직에 적용해 보면, 조직은 인간 행위자, 즉 공무원, 시민,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간 관계망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구성하는 네트워크적인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비판과 신유물론적 재사유

1. 행정학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

1) 기존의 조직이론⁷⁾

행정학 조직이론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직의 행위자가 인간과 제도라고 보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Weber의 관료제 이론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에 그치고,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다.

인간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Taylor(1911)의 과학적 관리론 이후, 인간의 심리와 비공식적 관계를 조직의 주요 변수로 보는 동기이론(Maslow, 1943; Herzberg, 1966), 행태주의(Simon, 1957)에 기초한 조직행태론,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 조직의사결정이론도 조직은 인간 행위자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구조화된 구성물이며, 조직의 비인간 요인은 조직의 효율을 높이거나 제한하는 단순한 ‘제약조건’으로 본다.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조직이론(DiMaggio & Powell, 1983; Powell & DiMaggio, 1991; Powell, 1991)도 제도·규범·정체성·문화가 조직의 중심적 구성요인이고, 비인간 요인은 제도적 행위 규범을 구성하는 ‘상징적 요인’으로 해석될 뿐, 비인간요인의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의 환경을 강조는 환경결정론뿐만 아니라 조직생태론(organizational ecology)도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환경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선택적 압력(selective pressure)’으로 간주된다. 즉 환경은 조직이 적응해야 하는 외생적 조건일 뿐, 조직 행위의 요인이 아니다. 조직의 기술을 강조하는 기술결정론도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김대건 외, 2020; 오석홍, 2018), 기술은 여전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인간이 설계하고 통제하는 객체로 다루어지고, 기술의 행위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조직네트워크 이론도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망을 강조하지만, 조직의 비인간 요인의 행위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공공관리론의 대응으로 제기된 신공공서비스론도 공동체 기반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조하지만, 조직의 행위자는 여전히 인간이다.

7) 고전적 행정학 조직이론과 현대적 행정학 조직이론을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이,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전체 위에 서 있다. 첫째, 조직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실체(entity)이다. 둘째, 인간만이 조직의 행위를 결정한다. 셋째, 조직환경은 외생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2) 신유물론적 조직이론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은 인간-비인간의 얽힘의 장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을 다시 사유하는 출발점이다. 조직은 인간과 비인간이 구성하는 더-인간-이상(more-than-human)의 생성 과정이며, 인간과 비인간 요소의 얽힘에 의해 생성되는 실체이다.

이는 조직에 대한 인식틀의 기반인 자연과 사회, 물질과 비물질,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온 근대 인식론을 넘어선다. 또한 조직을 고정된 구조나 범주로 이해하기보다, 관계, 흐름, 과정, 배치의 관점에서 본다. 조직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생성되는 과정(becoming)이며,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하나의 행위자일 뿐이다.

3) 비교

기존의 조직이론에서 보면, 조직은 제도·규칙·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안정적인 ‘구조적 실체’로 이해된다.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합리성·책임성의 향상 등 기능적·관리적 최적화에 있으며, 분석의 초점도 구조·절차·규칙과 같은 공식화된 제도적 요인에 맞춰진다. 조직환경은 조직 바깥의 제약 조건이나 변수로 취급되고,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는 개인·집단·리더 등 인간 행위자이다. 조직의 형성 요인인 제도, 권력 구조, 의사결정 구조는 인간을 위한 요인으로 설정되며, 조직변화, 리더십 변화, 제도 개편, 외부 충격 등도 인간중심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시간성은 계획-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선형적·관리적 시간에 가깝고, 공간은 활동이 벌어지는 수동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기술은 업무 수행을 돕는 보조적 도구로 간주되며, 조직의 안정성은 규칙·절차·관리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조직 설계 관점 역시 제도 개선, 역량 강화, 참여 확대 등 인간중심의 제도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신유물론적 조직이론에서 보면, 조직은 인간·비인간이 순간적으로 결합해 생성되는 배치(assembly)·장치(apparatus)이다. 연구의 목적은 조직이 ‘어떻게 존재

하고 작동하는가'라는 존재 방식 자체를 재사유하는 존재론적 재구성에 있다. 분석 단위는 공식적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사건(event), 힘, 물질·기술·정동의 흐름 등이다. 조직환경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내재적 행위자로 이해되며, 조직의 중심 행위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공간·기후·기술·사물·정동까지 포함한 다중행위자 체계로 확장된다. 조직의 형성은 물질·기술·공간·기후·정동이 맞물리는 상호작용적 배치로 설명되고, 조직변화도 공간·기술의 재배치, 계절·기후 리듬, 정동 같은 비인간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본다. 시간성은 계절·기후, 노동·생활 리듬에 기반 한 비선형적 시간으로 이해되며, 공간은 적극적인 행위적 공간으로 해석된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제·참여·관계를 조직하는 핵심 매개체이자 행위자이고, 조직의 안정성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유동적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조직설계는 사람과 제도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기후·공간·기술의 배치를 조정하는 장치(apparatus)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조직이론과 신유물론적 조직이론 간의 비교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존의 조직이론과 신유물론적 조직이론 간 비교

구분	기존의 조직이론	신유물론적 조직이론
조직 본질	조직은 인간 주체가 제도·규칙·절차를 통해 형성하는 안정적 구조적 실체	조직은 인간·비인간·기술·기후·정동이 순간적으로 결합하여 생성되는 배치(asmsemblage)·장치(apparatus)
연구 목적	효율성·합리성·책임성 향상 등 기능적·관리적 최적화	조직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사유하는 존재론적 재구성
분석 단위	구조·절차·규칙 등 공식화된 제도적 요인 중심	사건(event), 얽힘, 물질·기술·정동의 흐름 중심
조직환경	조직 외부의 제약 조건·변수로 간주	조직을 구성하는 내재적 행위자(material/spatial agency)
중심 행위자	인간(개인·집단·리더)이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	인간·비인간(공간·기후·기술·사물·정동)의 다중행위자 체계
형성 요인	제도 설계, 권력 구조, 의사결정 구조 등 인간중심 요인	물질·기술·공간·기후·정동의 상호공속적 배치
변화 요인	리더십 변경, 제도 개편, 외부 충격 등 인간 중심 요인	공간·기술의 재배치, 계절·기후 리듬, 정동 등 비인간 요인
시간성	선형적·관리적 시간(계획-집행-평가)	리듬 기반·비선형 시간(계절, 기후, 노동·생활 리듬)
공간성	활동의 배경·장소로 이해되는 수동적 공간	관계·접근성·권력·감각을 구성하는 행위적 공간(spatial agency)

기술	효율성·업무 수행을 돕는 보조적 도구	의제·참여·관계를 조직하는 핵심 매개자이자 행위자
안정성	규칙·절차·관리에 의한 고정적 안정성	잠정적·유동적으로 구성되며, 항상 재생성됨
설계 관점	제도 개선, 역량 강화, 참여 확대 등 인간 중심 설계	장치(apparatus) 설계: 물질·기후·공간·기술 배치 중심의 조정

2. 조직 정의에 대한 비판

1) 기존의 조직 정의

조직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업과 통합의 활동을 위한 정형화된 구조를 갖춘 2인 이상의 사회적 집합체”(김대건 외, 2023: 65) 또는 “일정한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집합체”이자 “공식적 구조와 규범을 갖춘 비교적 지속적인 사회적 체제”로 정의된다(오석홍(2018:65). 이러한 정의는 조직은 사람에 의해 구조화된 집합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조직을 기계·유기체·두뇌·문화·정치·감옥 등의 다양한 이미지(Morgan, 1986; 김대건 외, 2023에서 재인용)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도 ‘사람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체계’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관료제 및 고전적 원리에 입각한 전통조직이론을 탈피하기 위해 나온 카오스 이론 등 현대 조직이론은 복잡성·비선형적 상호 인과성 및 자기생성(auto-poiesis)⁸⁾과 조직의 외부환경과의 교호작용을 강조한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왔지만, 조직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전환을 제기하지 않았다.

기존의 조직 정의는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인식론적 기반을 공유한다. 첫째, 조직은 인간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조직의 중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둘째, 조직의 구조·규범·절차는 인간이 설계하는 요인이며 조직 형성의 근거를 인간의 합리적 기획에서 찾는다. 셋째, 정치·사회·문화·경제·기술·공간과 같은 비인간 요인은 조직의 외부 환경으로 간주된다. 자기생성(auto-poiesis)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직의 외부환경을 조직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8) 시스템이 자신의 구성 요인을 스스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생물학자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제시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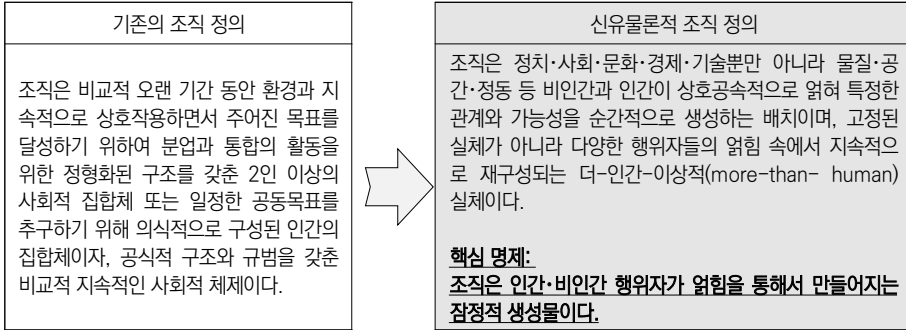
처럼 기존의 조직 정의는 조직을 목적 합리적인 인간들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체계로 보는 인간중심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2)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

실제의 조직은 인간의 의지와 제도 설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경제·기술·물질·공간·정동 등과 같은 비인간 요인이 얹혀 있는 실체이다. 신유물론(new materialism)적 조직 정의는 이러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신유물론적 관점은 조직의 다양한 비인간 요인의 적극적 행위자 및 행위성을 인정한다. Deleuze & Guattari(1987), Latour(2005), Barad(2007), Bennett(2010)로 이어지는 신유물론에 입각하여 조직을 정의하면, 조직은 '인간·비인간 요인들이 상호공속적으로 얹혀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을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배치(assemblage)로 보거나, 관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생성적 장치(apparatus)'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를 구체화하면, 첫째, 조직은 사회적 실체를 넘어서서 인간과 비인간 요인이 상호공속적으로 얹힌 존재론적 구성물이다. 둘째, 조직의 경계는 명확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유동적이며 분석적 편의를 위한 인위적 것일 뿐이다. 셋째, 조직의 경계는 인간과 비인간 요인들이 얹혀 생성되는 연속적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간의 교류가 이루어는 기점이다. 넷째, 조직환경은 조직의 외부에 있는 '외재적 조건'이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내재적 조건'이며, 조직의 작동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자이다. 다섯째, 조직은 고정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유동적 생성체이다. 여섯째, 조직은 인간과 비인간의 다중행위자(multi-actor)의 집합체이다. 일곱째, 조직의 행위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아니라 상호내행위(intra-action)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비교

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조직의 존재론·구성요인·환경·행위자·시간성 및 조직 정의와 관련된 근본적 질문의 측면에서 기존의 조직 정의와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후자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가 조직을 구성하고 실천을 형성하는 존재론적 현실을 반영하고, 인간중심적 접근을 넘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확장된 조직 정의를 제공한다.

<표 2> 기존의 조직 정의와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 간 비교

구분	기존의 조직 정의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
존재론	독립된 실체(entity)	잠정적 배치(assemblage)
구성요인	인간중심의 구조·규칙	인간·비인간(공간·기후·기술·사물·정동) 요인
환경	외부 변수(외재적 조건)	내부 구성 행위자(내재적 조건)
행위자	인간(조직구성원)	인간·비인간 다중 행위자(multi-actor)
시간성	선형(계획→집행→평가)	리듬·순환·비선형
근본적 질문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조직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무엇이 조직을 구성하는가?

3. 주민자치회 정의에 대한 비판

1) 기존의 주민자치회 정의

주민자치회는 주로 참여를 제도화한 회의체,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장치, 또는 민주적 참여 행정의 실천 구조이자 주민중심의 자치 기구로 이해되어 왔다. 주민자치회

는 일정한 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住民)’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조직’이기에, 주민(住民)의 의지·역량·참여도를 중심으로 조직의 성패가 설명되어 왔다. 또한 그 정의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둔 제도 설계로 환원되어 왔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전제 하에 암묵적으로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자치회의 ‘주민(住民)’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住’와 ‘일반 민중(民)’을 의미하는 ‘民’의 합성어이다. 의미 그대로 해석한다면, 주민(住民)은 특정 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실제의 현장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주민(住民)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특정 행정 구역에 머물고 있는 주민(住民)의 회의체로 축소되어 있다. 즉 주민(住民) 중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住民)이 참여하는 제도적 틀로 축소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인간 요인의 작용을 주변화하고, 주민자치회의 형성과 변화를 인간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실제로 작동되는 마을공동체의 복합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2)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정의

주민자치회는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배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인이 함께 얹혀 작동하는 조직이다. 현실의 주민자치회는 인간의 의지에 기초한 제도 설계를 넘어서서 삶과 밀접히 연관된 생태적 리듬, 주민들의 회의 공간 구조, 회의실의 의자 배치, 회의 장소로 가는 이동 동선, 회의 시간대, 생활과 관련된 주변 지형적 제약, 자치의 역사·기억 및 정동의 흐름 등 비인간 요인의 작동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의제도 구성원의 선호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운영 예산과 지침, 회의록 등 문서 양식,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보직 순환에 의한 공무원의 교체 등 비인간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인간과 비인간 요인이 서로 얹혀있는 생성물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고, 이동이 어려운 조건을 공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빈집과 유휴 공간을 새로운 생활 거점으로 하는 것 등이다. 지역마다 다른 생활 리듬과 물질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주민을 주민(住民)이 아닌 주민(主民)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민 ‘주(主)’와 자치의 주체 또는 자치의 능동적 행위자인 민(民)이다. 고대 폴리스(polis)

에서는 민(民)은 데모크라티아(demokratia), 즉 ‘민(테모스, demos)에 의한 지배’의 핵심 주체였다(김대진, 2025). 그러므로 주민(住民)을 주민(主民)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비인간 행위자와 상호공속적(상호내행위, intra-action)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 확장하여야 한다.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인간의 참여와 의사결정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공간·기후·생태적 리듬·기술·정동⁹⁾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 그 자체는 비인간 요인(기후, 정동, 역사적 경험, 경제적 조건)등과 복합적으로 얹혀있는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주민(住民)을 주민(主民)으로 전환하고, ‘주민(住民)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신유물론적 관점은 주민자치회를 복합적인 장치¹⁰⁾로 재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상호공속적으로 얹혀 특정한 관계와 가능성을 생성하는 배치로 이해한다면,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인간이 주축이 된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더-인간-이상적(more-than-human) 장치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주민(住民) 아닌 주민(主民)이다. 둘째, 계절, 생활동선, 회관의 공간 구조 등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행위자이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고정된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장치(apparatus)이다. 넷째, 주민자치회는 제도·절차·규범으로 구성된 고정적 구조가 아니라, 공간·기술·물질·정동이 얹혀 관계를 조정하는 동적장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신유물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정동은 심리학에서 감정(feeling), 정서(emotion), 기분(mood)에 대한 잠재된 경험을 말한다.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인 정서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개인적인 차원 이전의 전개인적인(pre-individual)단계에서 감정과 느낌을 말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10) Foucault(1977)가 처음 사용하였고, Barad(2007)가 장치(apparatus) 개념을 확장했다. Foucault에 의하면, 장치는 권력, 지식, 담론, 제도, 건축, 법률, 과학적 담론 등 사회를 구성하고 개인을 규율하며 특정한 주체(subject)를 만들어내는 모든 전략적 연관망을 의미한다. Barad의 장치는 단순히 도구나 실험기구가 아니라, 물질과 담론이 상호작용하며, 차이를 물질화하고 현실을 구성하는 특수한 물질-담론적 실천을 의미한다.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행위하는(doing) 유동적인 존재이며, 장치를 통해 현실이 구성되므로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리되지 않는 행위적 실재론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기존의 주민자치회 정의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정의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주어진 제도 설계 하에서 특정한 행정 구역인 고정된 경계 안에서 머물고 있는 주민(住民)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제를 형성하는데 참여하고, 형성된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중심의 자치 기구이다.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主民)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상호공속적으로 얽혀 주민참여·의제 설정·관계구조를 지속적으로 생성·재조정하는 다-인간-이상적 배치이며,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생태적·물질적·기술적 조건과 함께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생성적 장치이다.
	핵심 명제: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인간·비인간의 상호공속적 얽힘이 생성하는 다-인간-이상의 배치이다.

3) 비교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지와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또는 제도이다. 환경은 조직 바깥의 외재적 조건으로 주어지고, 작동 원리는 제도·규약·회의절차·참여 기능 같은 제도적 장치의 정합성에 의해 설명된다. 시간성은 계획-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선형적 시간을 전제로 한다.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도 참여 의지·역량·동기처럼 개인의 내적 속성에 무게를 둔다. 공간은 회의가 열리는 물리적 장소(배경적 공간)로 본다. 의제 형성은 주민 선호와 논의의 수렴 과정으로 설명된다. 변화 요인도 제도 개편, 리더십 변화, 교육 강화 같은 인간중심 요인이 핵심이 된다. 또한 규칙과 절차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고, 분석의 단위는 인간 행위자가 된다.

반면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는 인간만으로 구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얽혀 생성되는 배치(assemblage)이자 생성적 장치(apparatus)이다. 이때 ‘주민’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주민(主民), 즉 상호공속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재규정되고, 핵심 행위자 역시 인간에 더해 기후·지형·공간·기술·문서·동선·정동 등 비인간 요인까지 포함하는 다중 행위자로 확장된다. 시간성은 비선형적이며, 환경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함께 구성하는 내재적 조건이다. 공간은 하나의 행위자로 이해된다. 참여는 인간-비인간 조건의 결합에 의해 촉발되거나 저해된다고 본다. 문서 양식, 계절, 공간 배치, 기술 장치 등 비인간 요인이 의제의 형식과 범위, 우선순위를 함께 구성한다고 본다. 기후 변화, 공간 재구조화, 기술 도입, 동선 재구성 등 비인간 요인이 변화의 실질적으로 촉발 기제로 보며, 얽힘과 생성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비안정성(유동성)을 조직의 본래적 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사건과 물질·기술·정동의 흐름 자체를 핵심 분석 단위로 삼는다. 인간-비인간 얽힘 속에서 공동 문제를 구

성·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존의 주민자치회 정의와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정의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후자는 주민자치회 연구와 실제 작동의 원리를 기존의 참여 확대나 역량 강화 중심 접근을 넘어,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의 조건을 고려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조직적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향후 자치 정책 설계와 조직운영 방식의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표 3> 기존의 주민자치회 정의와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정의 간 비교

비교 기준	기존의 주민자치회	신유물론적 주민자치회
조직 본질	주민의 의지·참여로 구성된 회의체 또는 제도	인간·비인간의 얽힘에 의한 생성물 또는 배치 (assemblage)
주민	거주 기반의 존재(住民) / 참여의 주체로서의 인간	주민(主民), 상호공속적 존재로서의 인간
핵심 행위자	인간(주민·위원·공무원, 이해관계자 등)	인간과 비인간(기후·지형·공간·기술·문서·동선·정동 등)
환경	외재적 조건	내재적 조건
구성 원리	제도·규약·회의절차·참여 기능 중심	생태·기후·공간·기술·정동이 얹히는 생성적 장치 (apparatus)
시간성	선형적(계획-집행-평가 중심)	비선형적(생태적 리듬, 농번기·농한기 등 계절적 요인)
공간성	회의가 열리는 물리적 장소(배경적 공간)	의사소통·접근성·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공간 (spatial agency)
참여 결정요인	참여 의지·역량·동기	인간·비인간 조건
의제 형성요인	주민 선호·논의·외견 수렴	문서 양식, 계절, 공간 배치, 기술 장치 등 비인간 요인도 포함
변화 원인	제도 개편·리더십 변화·교육 강화	기후 변화, 공간 재구조화, 기술 도입, 동선 재구성 등 비인간 요인
안정성	규칙·절차 등 안정적	얽힘과 생성 등 불안정적
분석 단위	인간 행위자, 참여도, 의사결정 구조	사건, 물질·기술·정동의 흐름
목표	주민 참여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	인간·비인간 얽힘 속에서 공동 문제를 구성·조정
실천 방식	회의·토론·합의 중심	기후·공간·기술과 얽힌 관계적 실천(동선·환경·정동 기반 실천)

3. 마을공동체 정의에 대한 비판

1)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의

전통적으로 마을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간 단위”,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생활 기반”, “주민 상호관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네트워크”(네이버사전)와 같은 인간중심적 틀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는 마을을 하나의 사회적 집단 또는 인간 관계망의 총합으로 간주한다.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조직체 또는 집합체 또는 농·산·어촌의 부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거버넌스 8가지 원리를 제시한 Ostrom(1990)도 공동체를 제도주의와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마을이라는 실재를 구성하는 물질·공간·기후·기술적 요인 등 비인간 요인들의 작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며,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동의 실제 원인을 인간 중심으로 축소한다.

2) 신유물론적 마을공동체 정의

데모크라티아의 ‘데모스(demos)’는 ‘민중(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던 작은 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데메(deme)는 자체적인 관리, 종교, 군사 기능을 수행했으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民)’은 자치의 최소 단위인 마을(demos)의 주체이며,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책임지는 정치적 존재(신철희, 2013; Mainn, 1997)이다. 동시에, 마을은 가장 작은 자치 단위인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 요인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마을은 거주하는 정주 단위로 보는 시각에서 인문·정치·지리적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자본(Putnam, 2000; Putnam & Feldstein, 2003)의 최소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을이라는 장소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변형시키는 적극적 행위자이며, 마을이라는 공간은 배경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생산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마을은 물질적·기술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

한편, 마을공동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천, 산림, 토양, 농지, 바람, 일조량, 생태

적 환경, 도로, 가로등, 시장, 병원, 학교, 교회, 버스노선, 공간적·물질적 인프라. 전력망, 통신망, 휴대폰, SNS 플랫폼, CCTV 등 기술적 시스템, 마을역사, 공동의 감정 등의 복합체로 보아야 한다. 신유물론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는 어떠한 물질적·생태적·기술적·정동적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인이 얹혀있는, 살아있는 더-인간-이상(more-than-human)의 구조적 배치이다. 마을공동체에서 인간관계는 물질·기술적 배치가 먼저 구성한 조건 위에서 발생한다. 마을공동체의 행위-네트워크는 인간의 선택 이전에 물질·기술적 장치(apparatus)들에 의해 가능 조건을 부여받는다. 결국 마을공동체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생산하는 다중 행위자 집합체이다. 마을공동체를 인간중심적 사회적 집합체로 보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실제 공동체 작동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직으로서의 마을공동체의 신유물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의	신유물론적 마을공동체 정의
조직으로서의 마을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간 단위,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생활 기반, 주민 상호관계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인간중심적 사회적 집합체이다.	조직으로서의 마을공동체는 인간과 자연·기후·공간·기술·물질적 인프라·기억·정동 등이 상호공속적으로 얹혀 공동체 활동·관계·의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다중 행위자의 배치이며, 고정된 사회적 집합체가 아니라 공간과 물질의 재구성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생태-기술적 공동 실천의 장이다.
	핵심 명제: 조직으로서의 마을공동체는 특정 장소의 생태·마을의 기억과 정동 등이 인간의 생활세계와 맞물려 공동실천을 만들어내는 장소적 배치이다

3) 비교

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조직의 본질, 형성요인, 공간, 시간성, 변화원인, 행위자, 안정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의와 신유물론적 마을공동체 정의를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후자는 마을공동체 연구에서 인간중심적 분석을 넘어, 물질·기술·공간·기후의 행위성을 포함하는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4〉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의와 신유물론적 마을공동체 정의 간 비교

비교 기준	기존의 마을공동체	신유물론적 마을공동체
본질	인간 관계망·정체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집합체	인간·자연·기술·공간이 얹혀 생성되는 생태-물질-기술적 배치
형성 요인	유대감, 신뢰, 문화, 리더십 등 인간 요인	지형, 기후, 인프라, 동선, 기술 플랫폼 등 비인간 요인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재편하는 적극적 행위자
시간성	선형적	비선형적
변화 원인	리더십 변화, 주민 의식 등 인간 요인	공간 재배치, 기후 변화, 기술 도입, 동선 변화 등 비인간 요인
행위자	인간	인간, 자연·기술·공간·정동 등
안정성	정체성·전통·관계망 유지	얹힘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Ⅵ. 신유물론의 적용: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¹¹⁾를 중심으로

최근(2025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자체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기본사회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확장할 수 있는 추진과제로 ‘차관보’를 상계해 ‘자치혁신실’을 신설하고, 자치혁신실의 자치분권국 주민자치혁신과는 주민자치업무, 즉 주민자치회, 읍·면·동장 선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합·연계하여 수행하고,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지원과는 마을기업, 지자체 사회경제 지원, 청년마을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1.25.).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의 방향과 목표는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에 의한 자치와 공동체가 만드는 사회적 성장을 유도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이 구축한 인간중심의 도구적·관리적 세계관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양적 참여 확대, 주민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

11)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고 경험한 사례들이다.

스의 실현이라는 규범적 목표의 틀 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 자본, 신뢰 회복, 주민 간 관계망 형성 등 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 중심의 프레임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표준화된 조례 틀 안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실재를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기존의 정책 방향과 각종 현행 법·제도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1. 상호공속성과 얽힘에 의한 생태적 리듬(ecological rhythm)

1) 춘천시 신사우동의 청류마당 해바라기 꽃길 조성

춘천의 신사우동 주민자치회가 시도한 청류마당의 해바라기 꽃길 조성은 주민들의 참여와 회의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라는 식물의 성장 리듬, 햇빛의 양과 청류마당의 토양의 질, 비의 양, 계절적 변화 등 수많은 비인간 요인들이 선제적으로 ‘해바라기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꽃길 조성은 인간 주민들의 기획을 넘어 생태적 가능성에 주민들이 응답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꽃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행동, 산책 동선의 변화는 모두 해바라기라는 생명의 힘, 즉 Bennett(2010)가 말한 정동(affect)의 재배치인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라는 자치조직과 그 구성원인 주민은 Bennett(2010)가 말하는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과 협력하는 행위자로 등장한다. 해바라기 꽃길은 ‘주민들의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라, ‘햇빛-토양-습도-기온-계절-동선-주민의 감각이 서로를 구성하며 꽃길이 가능해지는 세계’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 위와 같은 실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지 산물이라는 인식’을 넘어, ‘생태적 리듬에 응답하면서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식물-공간-기후-정동의 배치에 의해 생성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춘천시 모두의 정원, 원주시 문막동구밭, 삼척시 산양마을 운영위원회

모두의 정원, 문막동구밭, 산양마을 운영위원회 마을공동체는 마을텃밭 등을 공동 경작하는 공동체들이다. 이들 공동체의 활동은 단순히 주민 참여 프로젝트가 아니다. 텃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토양의 질, 일조량, 계절의 흐름, 작물의 성장 주기와 같은 비인간의 행위성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한다. 텃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마을공동체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내부 결속력 및 참여 수준을 넘어 인간·비인간 요인이 상호공속적인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 위와 같은 실제의 마을공동체는 인간중심의 사회적 집합체로 환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지속 여부는 주민의 의지나 제도보다 텃밭의 토양의 질, 수분, 일조량, 작물 성장 리듬, 공동체 참여 구성원의 노동시간 등 비인간 요인의 결합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을공동체를 '사회적 관계의 집합체'를 넘어 '생태-물질-기술의 배치'로 볼 것을 요구한다.

3) 홍천 도사곡리의 하천변 정화활동

홍천 도사곡리 마을회가 진행된 '하천변 정화활동'은 단순히 주민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눈이 많이 오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봄철에는 유속이 빨라 위험하다'는 이유, 즉 하천변 정화활동의 실행은 주민이 결정했다고 보기 보다는 하천 자체의 비인간 행위자가 활동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천변 정화활동은 농번기와 농한기라는 생태적 주기와 시간성 속에서 운영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 수준, 주민 간 협력의 가능성 등 사회적 요인도 하천변 정화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하천은 단순한 자연 배경이 아니라 주민의 일정, 회의 참석률, 위험 판단, 이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즉, 하천변 정화활동 의제 결정과 실질적 활동은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하천-날씨-계절-접근성-안전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 마을공동체의 의제는 마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 '비인간 조건에 의해 생성된다.'

2. 물질의 행위성과 배치

1) 삼척시 원당마을 지킴단, 홍천 물결2리 '삼삼은구' 공동체

삼척시 원당마을 지킴단 공동체는 반찬 나눔, 김장 나눔,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 홍천 물결2리 '삼삼은구 공동체'도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신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척시 원당마을 지킴단 활동의 기반에는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실과 아파트 단지의 계단 구조, 현관 접근성, 독거노인의 이동 동선, 차량의 접근 가능성 등 복잡한 비인간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고,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게 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적 배려를 포함하여 아파트의 물리적 구조 등의 조건에 의한 것이다. 또한 홍천 물결2리 '삼삼은구 공동체'도 분리배출함의 위치, 이동 가능 거리, 분리 기준 표지판의 가시성과 글씨 크기, 수거 장비의 형태 등 다양한 비인간의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돌봄은 인간 간의 정서적 행위, 즉 서로 간의 친밀성, 누군가의 선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돌봄은 인간의 선의와 친밀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넘어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들의 행위성과 비인간의 물질적 협력체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구조적 장치(apparatus)에 의해 이루어졌다. 돌봄은 인간의 선의와 배려에서 시작되지만, 그 구현은 비인간 물질의 배치(assemblage)속에서 이루어진다.

- 돌봄은 인간적 배려를 포함하여 아파트의 물리적 구조, 쓰레기 분리 배출함의 위치·가시성·거리·장비 형태 등 물질의 행위성과 배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2) 원주시 용암1리 마을회, 춘천시 38문화마을/철원군 자등빛포토/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회

용암1리는 폐역이 된 신림역과 철도 주변의 유희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전개된 곳이다. 한때 중앙선 철도가 마을을 가로지르며, 주민을 물리적으로 분리했고,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공간적 구조로 기능했다. 철길이라는 물질적 경계는 주민 간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접촉 가능성을 제한했다. 마을을 가로 지른 철도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용암1리 공동체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구조로 작동되었다. 이후 신림역이 폐쇄되고, 삼봉문화센터라는 새로운 공동 활동 공간이 조성되고, 그 센터에 회의실·주방·강당을 갖춘 공간에 주민들이 모이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중심 허브로 기능하면서, 용암1리의 갈등이 완화되고 주민 간 유대감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삼봉문화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간의 배치와 공간의 행위성에 의해 공동체의 재편을 이끌어 낸 행위자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리더십 변화가 공동체 변화'라는 기존의 조직이론의 명제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공동체 변동의 핵심적 요인이 비인간 요인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춘천시 38문화마을도 공간이 마을의 조직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고령화가 심화되어 주민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간을 영화 상영 장소, 마을 소식지 발간 회의 장소, 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소규모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38문화마을 사람들의 동선이 재조직되고 일상의 소통이 촉발되었다.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철원군 자등빛포토의 경우는 사진 장비와 출력 기술이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도구이자 행위자로 작동한 것을 보여준다. 촬영 장비의 성능과 액자의 품질은 어르신들 자신이 존중받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 주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재구성하는 물질적 행위였던 것이다.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기술과 관련된 물질의 배치와 행위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토성마을 방송국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했다. 토성마을 방송국은 마이크, 믹서, 카메라, 조명, 편집 기계, 유튜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물질적·기술적 배치에 의해 공동체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꾼 것이다.

•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주민관계를 조직하고 재배치하는 행위자(spatial agent)이며,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성하는 힘을 보여준다.

3. 소결

위에서 소개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인간 주체의 의지나 제도적 설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기후·공간·지형·기술·사물·정동 등 비인간 요인들이 인간과 얽

혀 만들어내는 복합적 배치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 즉 조직을 인간의 의사결정과 제도적 기획이 주도하는 안정된 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실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인간 주체의 의지, 참여 동기, 제도적 규범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공속적 얽힘, 생태적 리듬, 물질의 행위성과 배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V. 향후 과제: 신유물론 조직이론의 더 깊은 논의를 위하여

V장에서는 향후 조직연구 및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신유물론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무엇을·어떻게 더 연구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1. 신유물론 조직이론의 개념적 정교화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조직성을 인간중심적 범주를 넘어 인간-비인간의 얽힘으로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신유물론의 핵심 개념인 상호내행위(intra-action), 생동하는 물질성(vibrant matter), 배치(assemblage),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 장치(apparatus) 등이 행정학 조직이론의 전통적 구성요인과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틀과 행정학의 규범적 가치, 절차적 구조, 정책 설계 논리가 연계되는 이론적 접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학의 신유물론화’가 가지는 학문적 기여와 실천적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도 있다.

2. 비인간 행위자 분석틀의 체계적 모델화

본 연구는 비인간 요인이 실질적 조직의 행위자임을 보여 주었으나, 비인간 행위자 요인을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의 행위성, 생태적 리듬, 물질·기술의 배치가 조직의 의제 형성·참여·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증거를

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지역 간 비교연구와 종단적 연구의 확장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신유물론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도시형·농촌형·산촌형·어촌형 등 다양한 공간 환경과 생태적 조건 속에서 상이하게 구성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유형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4. 정책·제도 설계에 대한 신유물론적 함의의 구체화

신유물론적 조직이론은 비인간 요인의 재배치와 생태적·공간적 조건의 조정을 핵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자치와 공동체 설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신유물론이 단순한 철학적 선언을 넘어 행정과 정책의 설계 논리를 바꾸는 실천적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

5. 행정학 조직이론 전반에 대한 존재론적 함의 탐색

마지막으로 행정학 조직이론에 신유물론이 제공하는 존재론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위기·재난대응·도시계획·돌봄정책 등 더-인간-이상 문제들이 행정의 주요 영역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신유물론 조직이론이 행정학의 인식론·방법론·정책론 전반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행정학 조직이론의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보다 큰 학문적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

VI. 맺는말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의 인간중심적·도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신유물론을 적용한 조직이론의 필요성, 신유물론적 조직 정의,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신유물론적 정의를 제안하였다. 또한 신유물론 관점을 강원특별

자치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실체에 적용하여,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상호공속적 얽힘 속에서 구성되고 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마을공동체 의제의 등장 방식,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주민 간 관계 구조의 변화는 인간 주체의 의지나 제도 설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공간 배치, 계절적 리듬, 기술 장치, 물질적 동선과 같은 비인간 요인들이 결정적인 행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직을 고정된 실체(entity)가 아니라 잠정적이고 생성적인 배치(assemblage)로 이해하는 신유물론적 조직이론을 제안하고, Barad의 상호내행위, Bennett의 생동하는 물질성, Deleuze와 Guattari의 배치 이론,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작동되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더-인간-이상(more-than-human)의 조직체이며, 조직의 구성과 변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얽힘이 재배열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행정학 조직이론에 대한 신유물론적 적용은 행정학 조직이론의 존재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조직은 인간중심적 변수와 제도중심의 설명을 넘어, 공간·물질·기후·기술이 조직 실천을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서 '조직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신유물론적 조직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지역과 조직 간 비교연구, 비인간 행위성의 체계적 분석틀 개발, 신유물론의 관점을 적용한 새로운 행정학 조직이론의 연구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행정학 조직이론을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 확장하고, 기존의 조직 정의를 넘어 새로운 조직의 개념을 논의하며, 조직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기술-물질적 실천의 장으로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정책적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숙.(2003).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1(2): 117-141.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김대건.(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9(1),

67-93.

_____. (2019). 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공적성, 공동체성,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0(1), 61-85.

_____. (2025).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재형성이 왜 중요한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뉴스레터」, Vol.60. (<http://www.gwmaeul.org>).

김대건 외. (2020). 『행정과 조직행태』, 대영문화사.

_____. (202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33(3): 1-26.

_____. (2023).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김필두·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5): 283-306.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회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찬동. (2014).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 61-85.

문성재.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현실문화.

성희자·전보경. (2006). 농촌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신수경. (2023). 전국 주민자치회회 위원 추천제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연구: 쿼터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3): 41-70.

신수경·이상현. (2021).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중심으로. 『NGO연구』, 16(3): 107-140.

신철희. (2013).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2(2), 203-226.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오석홍. (2018). 『조직이론』 (9판). 박영사.

주희진. (2021).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93-11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1.25.).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조하는 조직개편 시행.-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 시행」,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Bennet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Polity Press.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iMaggio, Paul J., and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1): 47-60.
- Foucault, M.(1977).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 Herzberg, F.(1966). *Work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Latour, B.(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Manin, B.(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광
준형 옮김.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휴머니타스.
-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organ, G.(1986). *Images of Organization*. Sage.
-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al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well, Walter W., and Paul J. DiMaggio (Eds.).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ouchstone Books.
- Putnam, R. D. & L. M. Feldstein.(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imon, H. A.(195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Taylor, F. W.(1911).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Harper & Brothers.

Abstract and Key Words

A Critique of Organization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New Materialist Rethinking: Focused on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Communal Demos

Kim, Daeg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ritiqu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organization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s largely presupposed organizations as entities that operate primarily through human will, rationality, and managerial techniques—an anthropocentric and instrumentalist premise. From a new materialist perspective, it redefines the concept of organization and reconceptualizes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communal demos as organizations not only constituted by human factors (residents' intentions, participation, social relations, and institutions) but also by nonhuman elements such as climate, topography, space, technology, materiality, and affect, which are entangled and co-operative in organizational functioning. Furthermore, by applying new materialis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ctual opera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s and the communal demos in Gangwon State is generated through processes in which human and nonhuman actors are relationally assembled and arranged within specific assemblages. Theoretically, the study reviews and interrelates Barad's concept of intra-action, Bennett's notion of vibrant matter, Deleuze and Guattari's theory of assemblage, and Latour's actor-network theory (ANT), thereby accounting for the material-affective operations of organization that conventional organization theory has failed to capture. Through this rethinking, the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and the perspective of a new materialist organization theory that moves beyond anthropocentric and instrumentalist frameworks, and it proposes new theoretical and practical tasks (includ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for organizing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communal demos.

[Key Words: organization theory, new materialism, residents' autonomy council, communal demos, human·non-human agency]